

예외없는 정규직전환 제대로 된 전환심의위원회 다시 소집하라!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요약

전환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기준	상시지속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판단	•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 예외 사유	•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60세이상 고령자등 2개 사유) •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등 5개 사유)
전환절차		전환심위 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

분회는 지난 12월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원 확대를 확인하고 병원측에 정규직 전환예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전환심위원회를 구성하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전환심위 구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막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다. 분회는 전환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확보된 정원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하였고 그 예측이 너무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현재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현황

구 분	휴직대체	전환예정	전문인력	일시간월	사업완료 예정	고령자	전환제외 (고령자)	총인원
명	14	36	49	41	37	23	3	203

- 정부가이드 라인도 어긴 일시/간월 구분... 서울의료원, 2년 계약직이 `일시간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현황에서 전환대상자 36명 제외한 167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시간월, 사업완료예정으로 구분된 78명의 비정규직들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시 간월의 정의는 연중 9개월 미만 수행되는 업무, 사업완료기간이 명확한 업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의 일시간월 업무 대상자들은 1~2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자로, 이에 대해 병원에 확인해보니 병원측은 “1년 미만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 응급실 필수인력, 전환대상 제외... 서울의료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완료 예정”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코디와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는 사업완료로 구분해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응급의료기준 평가 기준에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사업이므로 구분해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 2012년 서울시 상시지속 무기계약직 전환 지시에도 일부만 전환... “차별키워”

2012년 서울시는 상시지속업무 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으나, 병원은 계약직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차별을 키워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

- 서울의료원 “무기계약직 전환위해 정규직전환 심의위 다시 소집할 것”

분회는 6월18일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후 수차례 병원 담당자와 논의를 해왔고 **분회는 서울의료원 측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서울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자 공개채용한다는 합의 원칙을 깨고, 작년부터 농성장까지 차리며 분회가 주장해온 기존 계약직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다. 병원은 예외없는 정규직전환을 위하여 부서간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계약직이 없는 서울의료원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 노조도 대표노조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여 주길 바란다.

분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제외된 167명의 계약직들 중

누구도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이 없게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휴일엔 제발 좀 쉽시다!!

휴일, 이브닝 출근 전, 나이트 퇴근 후 외래업무 오티 받으라니요?

- 간호부 개인의 역량을 120% 발휘하라며 업무지시

근무사이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시 기관장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간호부에선 밤 12시 이브닝 퇴근 후 다음날 아침 8시 외래로 출근을 지시했다. 외래 오티를 위해 오전에 외래서 근무 후 이브닝 출근하라는 업무지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불법이다. 간호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하다.

간호부는 불법 자행 말고, 외래간호업무에 대한 오티기간을 문서화하여 당장 공식화하라

※혈!!! 서남병원 간호부장을 계약직으로 공고를 낸 후 정년퇴직한 이인덕 부장이 계약직 간호부장으로 채용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서울의료원 수탁병원에도 벌어지고 있다. 새서울료원 분회는 이러한 말도안되는 서울의료원의 인사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서 찾기 어려우셨다구요?
이젠 웹으로,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http://bit.ly/새서울_노조가입서



카카오톡 상단에 네모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